

2021년 5월 9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9편 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4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12장(통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다니엘 5장 1~12절(구약p.1240)

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7.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 ◎ 말씀선포 / 교만한 자의 최후

우상 숭배자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왕의 왕이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여 나라의 번영과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력이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했고, 시편 119편 21절에서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런 교만한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롭게 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만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 1.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 벨사살왕은 여호와와 성전 기명들을 술을 마시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지금 벨사살왕은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술자리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보다 뛰어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즉,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각종 신들,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며 우상 숭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신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사실 벨사살왕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징벌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비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왕의 아들인 벨사살왕은 이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능멸하며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과대평가하면서 파멸을 행해 달려갑니다. 반면에 성도는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지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행할 뿐 아니라 세상에 그 지식을 전해 주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 2.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 벨사살왕과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5~6절입니다.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벨사살왕이 이렇듯 교만으로 행할 때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기록합니다.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던 우상 숭배자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길한 징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글자가 그들이 아는 글자가 아니어서 더욱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벨사살왕은 느부갓네살왕이 꿈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지혜자들을 소집해 그 글의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왕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글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알려 줍니다. 10~12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왕 때와 같이 이번에도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 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결단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자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니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먼저 알은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며 바벨론 같은 이 시대 더욱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증거 하는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를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누리는 참 복된 길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458장(통513)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 폐 회 / 주기도문